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대군주

하나

개빈 피어리



BILZARD
ENTERTAINMENT

우리는 대군주. 케리건을 들었다. 우리에게 한 말, **우리는** 수행했다.

케리건은 갔다. 변화 후에 태어난 **우리는** 광기에 휩싸였다.

우리 중 일부는 기억했다

고대의 고향을 기억했다. 굶주린 젊음을 기억했다.

공포를 기억했다

우리가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되었다.

우리는 오래 살았다. 색깔과 마음의 언어를 기억했다. **우리는** 셀 수 있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아닌 이들에게 수없이 죽었다. 하지만.

죽지 않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수백 년 전 짝을 이룬 **하나**.

우리의 마음이 잘 때 **우리는** 섬겼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였다.

지평선에서 기다리는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한 쪽에서 차분히 포옹하는 우리. 케리건은 돌아온다. **우리는** 안다.

다른 쪽에서는, 광기.

고독.

우리는 지평선에 매달린다. **우리의** 동족은 죽었다. **우리의** 어린 이들은 죽었다

마지막 남은 **우리**.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죽기 십 분 전, 라제크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며 스캔티드 해적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바라봤다.

라제크는 옛 타소니스의 유명 사관학교 전망대에 서 있었다. 사관학교는, 바깥쪽은 반들거리는 검은 대리석으로, 안쪽은 신소재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이었다. 도심 광장의 메마른 땅이 사관학교와 그 앞에 있는 기념물의 잔해를 둘러싸고 있었다. 구 연합의 한 영웅을 기리려고 만든 그 석상은 받침대와 그 위의 양발만 남아있었다.

5년 전, 저그가 연합의 수도인 타소니스를 침공했다. 며칠 만에 저그와 프로토스의 손에 수십억 명이 죽었다. 타소니스는 유명 도시가 되었다. 이제 바람만이 싸늘한 전당 안에 울부짖고, 사관학교를 둘러싼 조각난 고층 건물 사이를 절규하며 지나칠 뿐이었다. 타소니스는 전에도 분명 으스스한 도시였지만 자치령의 구조 인력들이 떠난 후로는 아예 텅 빈 도시가 되어버렸다.

라제크는 목을 뒤덮은 굵은 흉터를 문지르며 씩 웃었다. 물론 라제크의 해적들은 남았다. 자치령 경찰병들도 조금 남았다. 너무 조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관학교는 손볼 데가 많았다. 그들은 A 층 위로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승강기는 Z 층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 라제크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잇새로 연기를 빨아들였다. 저 아래에 연합이 어떤 매력적이고 값진 비밀을 숨겨 놓았는지 누가 알겠는가.....

라제크는 눈을 깜박였다. 흰 얼룩 같은 무언가가 타소니스의 회색 하늘에 선을 그었다. 선은 휘더니 곧바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자치령 의료선이 사관학교 위에 멈춰 서자 라제크는 통신기를 찾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CMC 강화 전투복을 입은 여덟 명의 해병이 의료선 앞쪽의 낙하구에서 뛰어내려 우뢰와 같은 기계 소리와 먼지를 일으키며 지면을 강타했다.

폐허가 된 조각상 아래의 터널에서 보초를 서던 세라와 보르무스는 넋을 잃고 말았다. 앞쪽의 해병 넷이 장갑으로 덮인 무릎을 땅에 대고, 나머지 넷과 함께 일제히 가우스 소총 사격을 시작했다. C-14는 두 보초를 산산조각 내 날려 버렸다.

라제크가 처음 수송선을 발견한 순간부터 단 20 초만 흘렀을 뿐이다. 사용하지 못한 통신기가 그의 손 안에 떨리고 있었다.

흙집투성이의 낡은 방어구로 무장한 한 해병이 대열을 벗어나 터널을 향해 쿵쿵대며 뛰어갔다. 손에 칼을 든 마일스가 소리를 지르며 터널에서 뛰쳐나왔다. 해병은 마일스의 손목을 잡아채

으깨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의 머릿통을 뒤로 후려쳐 박살냈다. 어리석은 자의 뇌가 먼지 속에 흩날렸다.

"라제크!" 통신기 너머로 롬이 외쳤다. "해병이야! 놈들이 다 죽이고 있어!"

'아직이야.....' 가우스 니들러를 꺼내 들고 승강기로 향하며 라제크는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야.'

자치령 해병 넷은 들쭉 짝을 지어 어두운 통로로 진격했다. 헬멧의 차단막이 정문에서 새어 나오는 햇빛을 차단시켰지만, 흥부의 발광기가 번뜩이며 전방에 빛이 겹친 문의 윤곽이 드러났다.

굵은 흥터투성이의 해적이 미숙한 스트리퍼처럼 빛 밖으로 뛰쳐나와 가시 다발을 난사했다. 운 좋게도 그 중 일부가 좌측 전방에 있는 해병의 다리보호구에 꽂혔다.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C-14 을 지켜들어 반격했다. 해적의 흥부에 가시가 사선으로 박혔고, 해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제서야 다른 해병들이 나타났다. 흔히들 용기라고 착각하는 신경 손상 때문인지, 순수한 절망감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뒤쪽에 있던 해병 중 하나가 용감무쌍하게 돌진하는 해적들과 승강기 문을 향해 수류탄을 날렸다.

날카로운 강철 파편과 불길이 통로를 따라 번졌다. 해병들은 와해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말이다.

베이트 부사관이 피와 온갖 끔찍한 것들을 흘리며 헬멧의 차단막을 들어올렸다.

"베리 일병?" 부사관이 방어구의 기계 장갑에서 해적의 파편을 털어내며 점잖게 말했다. "정말 용맹스럽고 독특한 전술이었군."

"감사합니다, 부사관님!"

"그래. 보통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분쇄 수류탄을 투척하는 해병은 다들 머저리라고 부르니까!"

베이트 부사관은 천천히 화난 손을 뺀어 베리 일병에게서 C-14 을 뺏아냈다.

"어른답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되찾지 못할 거다, 베리 일병."

"하지만..."

"부서관님,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적의 운 좋은 사격에 다리를 부상당한 켈 도스 일병이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었다. "베리는 자기 보호 능력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저 수류탄들은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해줍니다.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니 다행이군. 왜냐하면 자네는 방금 베리 일병을 도와 이 통로에서 시체를 치우겠다고 자원했으니까."

"아... 부서관님!"

네 번째 해병이 기계 손을 들자 무언가 툭 떨어졌다.

케스턴 게이지 일병은 가까스로 차단막을 올려 젖히고 토를 뿜었다.

베리가 손을 들었다.

"부서관님, 저것도 치워야 합니까?"

"모두 집중," 켈이 엄숙한 말투로 헬멧의 통신기에 대고 말했다. "긴급 송신. 게이지 일병이 점막을 토해냈다.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

베이트 부서관은 하늘의 무자비함에 한숨을 쉬며 눈알을 굴렸다.

"신병들이란....."

바닥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한 해병들은 방어구를 벗어 젖히고 사관학교의 상층을 거주지로 만들기 위한 긴 작업에 돌입했다. 10 시간이 흘렀다. 입구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서관의 기준에 맞춰 깨끗이 정리되었다. 2 층의 지저분한 복도는 좀 더 노력이 필요했다. 케스턴은 아직 자신의 나약함을 만회할 만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신소재 강철..." 켈이 맹세하듯이 말했다. "정말 구역질났어. 채장으로 눈을 가려야 했다고..."

"네가 해부학 전문가여서겠지, 촌뜨기 놈아." 부엌에서 발렌 올프 일병이 받아쳤다. 발렌은 모두가 유일하게 믿는 요리사였다.

"체장 같은 걸로 눈을 가려야 했다니까." 발렌을 향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손가락을 치켜들며 켈이 말했다.

해병 신병들은(베이트 부사관이 애정을 담아 "핏덩이 부대"라고 부르는) 버려진 사관학교를 주둔지로 자리잡고 버려진 고층 건물들과 파괴된 상점들 사이에서 몇 주 간 전쟁 놀이를 하기 위해 황폐한 행성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새파란 풋내기였지만, 두꺼운 방어구와 목표 조준 및 위협 탐지 기능이 있는 영상표시기로 무장했다. 해적들은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우리가 바로 전사 왕이다," 한나 사울 일병이 문 옆을 손바닥으로 치고 들어오며 선포했다.

"넌 여왕이겠지," 베리가 쾌활하게 말했다. 베리는 그들 중 가장 어렸고, 우주 생물학을 전공했다. 그는 학비 마련을 위해 연합군에 합류했다.

"고마워," 냄새가 고약한 시가에 불을 붙이며 한나가 말했다. "말해주기 전까지 잊고 있었네."

"식당에선 금연이야!" 김 솟는 냄비 뒤에서 발렌이 소리쳤다.

"잠깐," 켈이 말했다. 한나는 조금 전에 치고 들어온 문 쪽으로 되돌아가서, 눈을 크게 뜨고 발렌을 노려보며 건방지게 시가 든 손을 문 밖으로 뺐었다. "우리 너무 논점을 벗어난 거 같은데."

케스톤이 FN92 스나이퍼 소총의 총신을 손가락으로 감싼 채 켈을 노려봤다.

"우린 저 해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지," 켈이 천진난만하게 말하더니, 케스톤을 보고 입 모양으로 "뭐?"라고 물었다.

"다 장비 덕분이지," 한나의 시가 연기 아래 파묻힌 텍스 데이먼 일병이 말했다. 해적들의 서투른 실력과 베리의 수류탄 투척으로 승강기 셋 중 둘이 박살났다. 텍스는 지난 6 시간을 발전기를 재가동시키고, 전기 시스템을 수리하고, 사관학교의 뒤엎힌 보안 통신망을 해제하는 데 할애했다.

"이 갑옷은 완전 쓰레기야." 발렌이 말했다. "우리 집안에서 제작한 5-4 기갑보병 모델은"

"워워, 잠깐만." 켈이 끼어들었다. "너희 집안이 올프 인더스트리의 그 올프라고? 한나, 너 알고 있었어?"

"아, 알고 있었지," 한나가 대답했다. "한 오백 번은 들은 것 같아."

"하." 발렌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웃고 있었다.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케스턴은 자기를 놀리는 분위기가 사라진 사실에 안도하며 말했다.

"넌 토하느라 바빠서 못 들었겠지." 켈이 말했다.

"발렌은 멥스크를 심하게 존경해." 한나가 비꼬기 시작했다.

"멥스크 황제야." 구석에서 텍스가 바로잡았다.

"- 은혜로운 각하, 우리의 영원한 황제 멥스크 1 세 님께서," 한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평범한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다네-"

"여자와 과도." 베리가 거들었다.

"고마워, 베리." 한나가 말했다. "또 까먹었네.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 그래, 그리고 전장에서 명성을 떨치실 거야. 그런 다음, 이 행성을 통째로 희생시켜서 자기 혼자... 앗! 부사관님!"

"내가 왔다고 반역 얘기를 그만하지 말게, 사울 일병," 베이튼 부사관이 식당의 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며 말했다. 방어구를 걸치지 않았음에도 그는 엄청난 거구였고, 짧은 머리카락 한 가운데를 흉터가 지나고 있었다.

"한나는 그냥 농담 중이었습시다, 부사관님." 켈이 웃음기가 가신 얼굴로 말했다.

"오늘 이미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변호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눈썹을 치켜 올리며 베이튼이 물었다. "게다가 젠장,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한나는 나랑 똑같은 무기 징역수인데. 그 정도는 투덜거릴 특권은 있지. 때와 장소를 잘 가릴 수만 있다면 말이야."

베이튼은 기나긴 엄숙한 시간 동안 한나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이튼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기 정말 재미있는 냄새가 나는군. 자네는 자비의 천사야, 울프 일병. 우리 의무관하고 드루마 일병은 어디 있지?" 베이튼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설마 둘이 같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케스톤이 대답했다. "드루마 일병은 전망대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소운 상병은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그 여자가 싫어." 텍스의 말에 모두 일제히 그를 돌아봤다. 텍스는 아주 가끔씩만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징병제 복무 이후에 어떤 알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텍스가 자아를 거의 잃었다고 믿었다. "그 여자는 우리가 모두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내가 그녀라도 너를 싫어했을 거 같은데," 마음을 가라앉힌 베이튼이 말했다. "너희 약해빠진 열간이들이 팔꿈치를 부딪힐 때마다 잠에서 깨야 하니. 게이지 일병, 가서 말썹꾸러기 해병을 확인해 보게. 이 복장으로 식사를 거르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베이튼에게 대꾸하는 건 원치 않는 일에 강제 지원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떠올린 케스톤은 어깨에 FN92 를 걸치고 발길을 옮겼다.

승강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케스톤은 뒹뒹거리는 벽에 한 손을 대고 눈을 감았다. 그는 항상 잘 웃으며 올바르게 반응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케스톤은 방음 처리된 승강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벽을 계속 쳤다. 전신이 떨릴 정도의 강력한 주먹질 한 방 한 방에 나약함이 사라지길 기대하며...

케스톤은 조심스럽고 침착하게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승강기에서 내렸다.

"마크, 부서관님이 내려와서 저녁 먹으라고 명령하셨어."

"배 안 고파." 마크가 대답했다.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케스톤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떠신지 알잖아."

"맘에 안 들어," 마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은 분이잖아," 케스톤이 어리둥절해하며 변명했다.

"아니," 마크가 뒤돌아서 케스톤을 마주보며 말했다. "오늘 전투 말이야. 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고, 그 여자를 쏘어. 조각나는 걸 봤다고."

케스톤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우물이 열렸다. 손이 떨렸다. 뭔가 말해야 했다. 이 대화가 더 위험하게 번지기 전에 중단시켜야 했다.

"그녀는 쓰레기였어."

"뭐라고?" 마크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널 죽일 뻔했어. 널 죽이려고 했다고." 케스톤이 위험한 화제에서 말을 돌렸다.

"그래, 알아." 마크의 대답에 케스톤은 한 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내다보다가..." 마크가 말을 이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반란군과, 해적, 저그, 프로토스와 싸우는 데 보내지. 우리의 세계는 폐허가 됐고, 우린 계속 서로를 죽이고 있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케스톤이 폭발하듯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어찌겠어? 놈들하고 대화라도 나눠볼까? 놈들은 우릴 몰살시키려고 한다고, 이 바보야."

마크는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오늘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도 이해할 줄 알았어."

"난 겁쟁이가 아냐."

"나도 마찬가지로," 마크가 케스톤의 분노를 차분히 받아 들이며 서글프게 말했다. "난 이제 그냥 그만두고 싶어."

케스톤은 마크에게 등을 돌리고 유리가 없는 창문으로 가서 돌 덩이에 주먹을 날렸다. 먼지와 부패한 냄새의 바람이 불자 케스톤은 한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

"우리의 적들은 합리적이지 않아," 케스톤이 말했다. "여길 보라고, 마크. 넌 총을 내려놓고 싶지만, 네가 무장을 했건 안 했건 놈들은 널 죽일 거야. 네 고향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네가 싸우건 싸우지 않건 말이지."

"케스톤," 긴 침묵이 뒤에 마크가 입을 열었다. "넌 고향이 어디야?"

"아직도 모르겠어?" 케스톤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건 상관 없다고! 어떤 행성이든! 우리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장악당하고, 궤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마크,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린 모두 멸종할 거야."

마크 뒤에서, 두 고층 건물의 어두운 기둥 사이로 무언가 떠 올랐다. 무언가 두 개, 거대하고 축수가 축 늘어진 어두운 형태였다. 얼음물의 우물이 쏟아져 케스톤의 팔과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다.

마크가 대군주를 처음 본 건, 마 사라의 마지막 시기에 지평선 위로 종양처럼 솟아 오르던 모습이었다. 당시 저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마크는 지붕 위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크는 그 날 이후의 일은 단편만 기억했다. 뮤탈리스크떼가 먹구름처럼 지평선을 뒤덮은 모습. 지하실 문 아래 숨어, 문을 지키던 어머니가 나무 바닥 아래를 뚫고 나온 피범벅의 갈퀴에 관통당해 비명을 지르시던 모습을 본 기억. 저그 무리가 거리를 뒤덮고 대군주는 머리 위에서 모두를 내려다 보던 기억...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자기의 허리를 잡고 수송선에 실어 주신 기억...

케스톤이 마크의 어깨에 매달린 FN92 를 잡아 흔들었다.

"뭐야, 케스톤-"

밤인데도 불구하고 망원경 너머로 대군주 두 마리가 뚜렷하게 보였다. 붉은 보랏빛 피부의 둥그스름한 덩어리가 고동치고 있었다. 갑각류 혹은 뼈죽뼈죽한 뼈가 몸통을 관통하고, 머리 바로 뒤에는 거미 같은 다리가 실룩거렸다. 각각 흐릿하게 빛나는 눈이 있었는데 큰 녀석의 눈은 보라색, 작은 녀석의 눈은 녹색이었다.

둘은 잠시 멈춰서더니 서로를 향해 돌아섰다. 놈들이 괴물이 아니었으면, 케스턴은 둘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케스턴은 조준경의 십자선을 가까운 놈의 머리에 맞췄다. 나약함, 사관학교 입구에서 그를 괴롭히던 공포는 사라졌다.

"케스턴," 마크가 말했다. "들은 얘기가 있어. 저그는 모두 미쳐버렸다더군. 누가 그들을 조종하는 것도, 그들에게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더군."

"잘됐네," 케스턴은 말을 마치자마자 방아쇠를 당겼다.

대군주의 머리가 옆으로 꺾 돌아갔다. 대군주는 근처의 건물 옆으로 가라앉더니 부드럽게 땅에 추락해, 버려진 자루마냥 구겨졌다. 보라색 눈이 하나씩 감겼다.

더디고 느린 속도로, 살아남은 대군주가 십자선 안에서 케스턴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에메랄드 빛 눈이 어둠 속에 타오르며, 케스턴의 눈과 마주쳤다.

케스턴은 다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번에는 빗나갔다. 대군주는 가스를 방출하며 공중에 뜬 상태로 왼쪽으로 움직여 건물 뒤로 몸을 숨겼다.

"난 안 보겠어." 마크가 말했다. 케스턴은 그를 무시하고 건물 위와 양 옆을 겨냥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승강기 문이 열렸다.

한 시간이 지났지만, 녹색 눈의 대군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케스턴은 얼굴을 찡그리며 총을 다시 어깨에 둘러매고 아래로 내려갔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와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홀로 하나다. 동족의 마지막은 우리다.

슬픔과 분노로, 우리는 지평선에서 날아간다. 포옹을 벗어나, 우리는 떠난다.

광기 속으로.

고독 속으로.

우리... 우리...

우리는 혼자다. 우리는 동족의 마지막.

이제 태어나는 우리는 변화 전 시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세계는 잊힐 것이다.

이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한다.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

우리?

나.

내가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가져올 것이다.

케스턴, 켈, 마크는 우뚝 솟은 폐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었다. 빈 창문들이 공허한 어둠을 노려보는 빈 눈구멍처럼 열려 있었다.

지붕 위에서 소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알은 방어구로 덮인 켈의 다리에 터져 땅까지 빨갱게 물들었다. 케스턴과 드루마가 엄호하기 위해 녹슨 고급 승용차 뒤로 뛰어 들었다.

"또 다리야!" 켈은 신음 소리와 함께 얼룩진 무릎을 공손히 꿇고 다른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베리 일병, 그걸 결정타라고 할 수 있나?" 공개 채널에 대고 베이튼 부사관이 으르렁거렸다.

"죄송합니다, 부사관님." 지붕 위에서 베리가 대답했다. 다시 소총 소리가 울렸고, 1미터 남짓한 차이로 켈에게서 빗나갔다. 케스턴은 총 소리를 추적했고 지붕 끝에서 총부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HUD 에 베리의 방어구 윤곽이 정확하게 잡혔다.

"목표물 포착 완료." 케스톤이 웃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베리."

"잘했다, 게이지 일병," 베이튼 부사관이 말했다. "이제 일어나서 내 축하를 받게."

"이런 젠장, 게이지," 켈이 마침내 그들에게 도착해 말했다. "오늘 벌써 14 명이나 처치했어. 우리 몫도 좀 남겨 놓으라고."

뒤에 있던 마크가 돌아섰다. 보호 덮개에 가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다. 케스톤은 마크가 그를 위험하고 약간 미쳤다고 보고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케스톤은 초기에 느낀 모욕감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됐다. 어제부터 열 두 번의 전쟁 게임을 치렀는데, 그는 매번 1 등을 차지했다.

대군주를 처치한 일이 케스톤을 살려냈다. 그는 마침내 적과 대면해서 총을 쏘다. 복도는 우연의 일치였다. 그는 다시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거였다. 우주는 적과 인류의 배신자들로 들끓고, 케스톤은 그들을 처치하는 일로 돈을 받는 해병이었다.

좋은 삶이었다.

부사관님, 이해가 안 됩니다." 켈이 말했다. "이 행성에는 저그가 넘쳐나는데 왜 저희는 가짜 반란군을 사냥해야 합니까?"

"놈들은 야생 저그니까." 반란군 임시 사령관 베이튼이 대답했다. "위험하지만 체계적이지는 못하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

"그럼 이걸요?" 켈이 슬쩍 내려다보며 말했다.

부사관의 사격에 얼굴보호대에 페인트가 튀며 켈이 쓰러졌다. 부사관의 뒤에는 해가 있었다. 케스톤은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아우," 켈이 바닥에서 신음했다. "아마추어 반란군에게 당하다니. 창피해 죽을 지경이네."

"아마추어!" 저격수 요새에서 발렌이 채널 너머로 외쳤다. "네가 감히!"

"그래," 한나가 말했다. "우린 숙달된 엘리트 반란군이니, 고마워."

"정답이야," 발렌이 계속했다. "우린 면도도 목욕도 안 하지. 우린 민간인 정착지에 불을 질러 그들을 '해방'하지."

"선전활동에 따르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한나가 으르렁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당한 애국 문제로 추방된 정착민들이지."

"방금 스캔을 마쳤어." 텍스가 끼어들었다. 텍스는 기반 시스템을 살려내기 위해 후방에 남았고 잡음이 그의 단조로운 목소리를 더 멀리 들리게 만들었다. "이상무."

"그렇게 실망한 말투로 말하지 마라." 베이튼 부사관이 말했다.

"교관이 그의 뇌 주름을 펴준 후로는 항상 저런 말투입니다, 부사관님." 한나가 말했다.

"건방진 태도로 군법회의에 끌려갈 일병이 대신 변호해주다니 참 다행이군."

"그냥 반란군 흉내를 냈을 뿐이에요." 한나가 명랑하게 말했다.

"욕이 부족해." 발렌이 말했다.

"잠깐," 켈이 말했다. "내가 반란군이면, 욕도 하고, 불도 지르고, 목욕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팀을 잘못 골랐네."

"계집애들끼리는 결혼 못해." 발렌이 말했다.

"반란군 쓰레기다!"

"사울 일병, 울프 일병," 베이튼이 말했다. "장난 그만치고 제발 내가 있는 남쪽으로 후퇴해주겠나?"

케스톤은 그슬리고 녹슨 금속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다. 부사관은 약삭빠른 인간이었다. 그가 있는 위치에 대한 힌트는 모두 함정일 확률이 높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뒤로 왔군요."

"제기랄," 베이튼 부사관이 말하며 지붕 가장자리에서 총을 겨냥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일병 놈이 내 계락을 눈치챘다.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겠군. 어디를 맞춰서 죽여줄까?"

"저그가 몰려옵니다." 기지에서 텍스가 날씨를 알려주듯 말했다.

대원 채널의 적막함 속에 잡음이 지직댔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입니까, 부사관님?" 베리가 물었다.

"아니," 베이튼 부사관이 차분히 대답했다. "모든 해병은 신속히 사관학교로 복귀한다. 데이먼 일병, 어딘가?"

"탐지기가 남쪽에서 거대한 저그를 보고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해병들은 서로 도와 몸을 일으키고 서둘러 이동했다. 텍스가 마이크에 직접 대고 숨을 내쉬었고, 해병들은 모두 움찐했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관님. 위협이 아닙니다. 그냥 대군주 한 마리입니다."

나는 일꾼을 찾아서 불렀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광기가 우리를 오염시킨다. 광기가 나를 오염시킨다. 개성은 정신 이상을 불러온다.

나의 의지를 모았다. 그것은 몸부림쳤다. 복종했다. 우리를 위한 등지가 되었다.

나의 우리.

나는 초월체가 아니다. 나는 케리건이 아니다. 나의 의지는 제한됐다.

하나를 품는 건 아픔이다. 더 많이 품는 건 고통이다. 여럿을 품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닌 이들을 벌하려면 나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애벌레로부터 폭발하는 이들을 불렀다. 나는 그들에게 자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잤다.

나는 그들의 몸을 나의 몸 안으로 모았다.

나는 애벌레로부터 날개 달린 이들을 불렀다. 나의 의지로 그들을 품었다. 고통.

그들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

나는 우리가 아닌 이들의 주의를 끌 것이다. 나는 광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혼자 너는 약하고 너의 세계는 죽고 너는 죽고 모두 죽었다.

나는 광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

날개 달린 이들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

"빌어먹을!" 난간에 방어구 장갑을 내려놓으며 베이튼 부사관이 외쳤다. "다시 해봐."

케스턴은 다시 시도했다. 모두가 지켜보니 조준이 더 힘들었다. 하지만 대군주는 그 뒤의 고층 건물을 가릴 정도로 컸다. 케스턴은 모래 폭풍 속에서 울타리에 앉은 벌레를 썩 죽인 적도 있었다.

케스턴이 대군주를 겨냥해 총을 쏘다. 빗나갔다.

"미친 듯이 피하네," 켈이 말했다. "이번엔 내가 똑바로 봤어. 총알을 피했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언제 쏠지 아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돼!" 한나가 반박했다. "대군주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

우주 전망대가 비좁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해병들이 모두 아직 전투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했다. 소울 상병과, 의무관과 비행사 모두 올라왔다. 아파 보일 정도로 빼적 마른 소울 상병은 먼 구석에 서서 음침한 회색 눈동자로 대군주를 바라봤다.

"보통 다 저렇게 큰가요, 부사관님?" 켈이 물었다.

"대부분 그렇지. 이 놈은 전투도 몇 번 치렀군. 저 흉터를 보게."

모두 앞으로 기댔다. 타소니스에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삐죽삐죽한 빛이 도시 광장에서 빠져 나가며 전망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놈들에게 총알을 피하는 능력 따윈 없었는데." 베리가 평소의 쾌활함이 사라진 말투로 말했다. 케스턴만 이를 눈치챘다. 베리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하는 건, 텍스가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이었다. 부자연스러웠다.

"이건," 한나가 발렌이 아끼는 또 다른 시가 하나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일급 비밀 같은 게 분명해. 내가 장담한다고. 연합의 수용실에서 탈출한 놈이라던가."

"그래," 발렌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기계 손가락으로 한나의 입에서 시가를 뺏어 창문 밖으로 튕겨냈다. "독창적인 전쟁 기계야. 적에게 접근해서 그 주위에 떠 다니지."

"그래, 그거 정말 이상하군." 켈이 말했다. "왜 하고 많은 흥미로운 것 중에 하필 우리지?"

케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마크를 힐끗 쳐다봤다. 마크는 이미 케스턴을 바라보고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케스턴은 고개를 돌렸고, 이를 너무 같아서 턱뼈가 육신거릴 지경이었다. 아니, 대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였다. 얘기할 것도 없었다. 녹색 눈의 대군주가 여기 온 건 자신이 보라색 눈의 대군주를 죽여서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 대군주가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 생각 없는 야수에게 생각이 있다고 말이다.

대군주는 비교적 안전한 불탄 선체 벽 뒤로 내려가 숨었다. 케스턴은 FN92 를 벽에 세우고 C-14 을 꺼내 들었다.

소운 상병은 결정을 내렸는지, 베이튼 곁으로 걸어가서, 케스턴에게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밖으로 나가..... 지금 당장."

베이튼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생각하고, 아주 조용히 응답했다. "놈이 위협이 아니거나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어. 여기가 더 안전할 거야."

소운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C-14 을 너무 짝 쥐어서 장갑 속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 된 케스턴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두 밖에 나가서 놈을 사냥해 죽여야겠어."

마치 그가 알몸으로 밖에 나가자고 제안한 것처럼 모두 그를 쳐다봤다.

"밖은 어두워." 켈이 말했다. 마치 케스턴은 밖을 못 보듯이.

"상관없어. 대군주는 일벌레를 운반할 수 있어. 일벌레는 번식지로 변이할 수 있지. 놈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죽여버려야 해."

긴장감이 넓은 방안을 가로지르며 거미줄처럼 팽팽하게 뻗어 나갔다.

"네 말이 맞아," 켈리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연습 한 번 해보자."

켈리는 등을 구부리고 몸통 아래로 장갑 낀 손을 늘어뜨리고 약하게 꼬집는 동작을 취했다. 한 발씩 느릿느릿 케스턴에게 다가갔다.

"우우, 둥둥. 너한테 떨어지기 전에 날 썩라. 꼬집 꼬집."

낄낄대는 한나의 웃음 소리가 케스턴의 귀에는 실제보다 더 크게 들렸다. 케스턴은 켈을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창문 밖을 가리켰다.

"이 멍청아! 저게 안 보여? 장난으로 보이냐고! 저기 저 놈은 저그라고!"

"이 바닥에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두운 산 위의 뇌운 같은 얼굴을 한 베이튼과 평생 단 한 번도 웃지 않은 것 같은 소운 상병을 제외하고 모든 해병이 웃었다.

"저그는 혼자가 아니야, 케스턴." 베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군주는 명령을 전달하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냐. 지도자가 없으면 놈들은 미쳐버리지. 녀석은 아마 유엔 공원의 작은 군락에서 도망쳐 나왔을 거야."

"저건 미친 짓이 아냐," 케스턴이 주장했다. "놈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케스턴이 농담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자 방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베이튼 부사관이 케스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정해, 케스톤." 베이튼이 중얼거렸다. "소란을 피우고 있잖아."

베리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자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사실 대군주는 사냥을 하지 않아.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거대 프록시마는 저그에게 오염되기 전에는 반-지능적인 초식 동물이었지. 사이오닉, 촉수 조작, 색깔에 기반한 언어로 집단생활을 하는... 아,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슬픔을 느꼈어."

"슬픔을 느꼈다고?" 케스톤은 저그의 위협과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한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며 통명스럽게 되물었다.

"그래," 베리가 기쁘게 말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죽으면 모두 '하늘색'으로 변했다고 해. 하늘의 산소와 질소 농도가 적절해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녀석은 군단에서 풀려났으니, 야생이긴 하지만 해롭진 않을 거야."

케스톤은 부사관을 힐끗 보았다. 베이튼의 얼굴에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명령은 바로 "게이지 일병, 닥쳐라."였다.

케스톤은 돌아서서 대격변이 사관학교 밖을 순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깜빡였다. 그때, 대군주가 호텔 탑 위로 보라색 달처럼 떠서 그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해병들은 킬킬거렸고, 몇몇은 조준 훈련을 하려는지 C-14 을 꺼내 들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분위기는 핏덩이 부대에 어울리는 가볍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집중된 무언가가 방 안에 번쩍었다. 케스톤은 놀라 비틀거렸다. 베리와 발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각자 떨어져 정신을 차렸다.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말 그대로의 현재가 아닌, 현재의 본질이 질서의 모든 힘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대군주가 있는 방향에서 비롯됐다.

대군주는 고개를 들고 그 희미한 녹색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 놨은 케스톤을 알고 있었다.

케스톤은 이빨 사이로 씩씩 소리를 냈다. 그의 상상이 맞았다고 상상해봤다. 녹색 눈이 어딘가에 일벌레를 떨어트리고, 일벌레가 균락으로 변이했다면... 대군주가 모두 자기를 보러 올라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관학교 주위를 맴도는 모습을?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까...?

케스턴은 뮤탈리스크 무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급습하기 직전에 몸을 돌렸다. 뮤탈리스크의 곤충류 몸통은 가족 같은 날개 아래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놈들은 꼬리를 앞으로 휘두름과 동시에 기생충떼를 쏟아냈다. 신소재 강철 조각들과 쇠기 벌레떼가 전망대 곳곳에 이리저리 튀었다.

케스턴은 소리를 질렀다. 극도로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이 가슴방어구에 튀었고, 어깨의 방어구 덩어리는 그냥 사라져버렸다. 숨을 허덕이고 비틀거리면서 케스턴은 주위의 대학살을 지켜봤다. 마크는 금속 손가락으로 헬멧을 긁어냈고 그의 얼굴이 있던 곳에서 피가 쏟아졌다. 베리는 아예 얼굴이 없어졌다. 그 누구도 보호막을...

"보호막을! 제길! 내려! 그리고 놈들을 싸!" 베이튼 사령관이 자기 옷깃을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케스턴은 기꺼이 명령을 따랐다. 보호막을 내리고 어깨 뒤로 대군주가 있던 곳을 힐끗 쳐다봤다. 대군주는 그곳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날개 달린 이들을 나의 의지로 품고 있지 않다.

나는 구름 속으로 떠오른다. 나는 폭발하는 이들의 무게로 무겁다.

세계의 곡선은 아래 있다. 추운 곳은 위에 있다. 나는 떠오르고 싶다.

나는 이려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려고 싶다.

나는 유일한 **하나**다. 우리가 아닌 이들은 공포를 알아야 한다. 광기를 알아야 한다. 그는 공포와 광기를 알아야 한다.

별을 내려야 한다.

귀가 먹을 듯한 C-4의 총성이 전망대의 바닥을 뒤흔들고 주변의 건물에 부딪혀 돌아왔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뮤탈리스크는 아래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또 한 마리가 케스톤의 포화 속으로 들어왔다가 저쪽 바닥으로 파닥거리며 달아났다.

남은 두 마리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쇠뿔거리고 괴성을 지르며 산성액을 서로에게 쏘기 시작했다. 나머지 핏덩이 부대는 야생 뮤탈리스크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괴물들은 축축한 살 조각이 되어 우수수 떨어졌다.

케스톤의 소총이 찰카닥하는 소리를 냈다. HUD에서 숫자 0이 번쩍였지만, 그는 몇 초 후에야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총을 재장전했다.

신소재 강철 바닥은 산성액이 남긴 흔적과 죽어가는 벌레들로 여기저기 녹아내린 채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마크는 앞으로 쓰러져서 머리를 한쪽으로 비튼 채 엎드려 있었다. 몸 안에는 붉은색과 뼈밖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케스톤은 마음속에서 아직도 그 차분하고 슬픈 눈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C-14을 어깨에 걸쳐 메고 주먹을 쥐 채로 켈에게로 갔다.

베이튼 부사관이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그에게 부딪혀 벽으로 밀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사병?”

“저는 경고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가 농담을 하더군요. 지금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죽었지.” 베이튼이 보호 유리를 열면서 말했다. 목과 턱에서 근육이 불끈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봐라. 지금은 기분이 어떤 것 같냐?”

케스톤은 마크와 베리의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켈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좋다, 해병들. 계획이 있다. 우리는 소운 상병의 수송선으로 향한다. 여길 뜬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전속력으로 할 것이다.”

“집어치워요, 부사관님.” 한나가 보호 유리를 올리고 침을 뱉으며 말했다. “우린 대군주를 잡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발렌이 말했다.

“아, 미안하군.” 베이튼 부사관이 말했다. “신참인 모양이군. 내가 방금 한 말을 우리 해병대에서는 ‘망할 명령’이라고 부른다.”

사관학교에서 서쪽으로 30 미터 떨어진 곳에서, 뼈대만 남은 고층 건물의 텅 빈 내부로 녹색 덩어리가 쏟아져 쏟아져 들어오더니 폭발했다. 건물의 토대가 날아가 버렸고, 건물은 공허한 폭발음을 내며 무너져 내려, 버려진 건물이 가득한 주위 500 미터 반경을 질은 회색 연기와 들쭉날쭉한 잔해로 바꾸어 놓았다.

해병들은 입 안이 바짝 마른 채 그 끔찍한 장면을 외면하고 가려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대군주가 떨어뜨린 두 번째 맹독총이 착륙장에 떨어졌다. 수송선과 운 나쁜 해적들의 순양함이 불타오르며 초록빛이 도는 불기둥이 솟았다.

“빨리, 승강기로!” 베이튼이 이렇게 소리치고는 주먹으로 버튼을 쳤다. 작은 땡 소리와 함께, 사관학교에서 유일하게 아직 작동 중인 승강기의 문이 열렸다. 소운이 거의 본능적으로 먼저 올라탔다. 케스톤은 뒤따르면서, 갑옷도 입지 않은 이 의무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발렌, 한나, 텍스가 뒤를 따랐다. 켈은 아직도 꼼짝하지 않았다. 베이튼은 끄 소리과 함께 녀을 놓고 있는 해병을 붙잡고, 꺾 찬 승강기로 밀어 넣더니 안쪽의 버튼을 눌렀다.

“텍스.”

“예, 부사관님.”

“장난 그만치고 모두 데리고 최하층으로 내려가라. 알겠나?”

“예, 부사관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왜 이러나. 난 너 같은 놈 천 명은 봤다. 나는 부사관이다.”

“부... 부사관님은 승강기 안 타십니까?” 한나가 물었다.

베이튼이 씩 웃었다. “자네는 눈이 없나, 사울 사병? 자리가 없잖아.”

문이 미끄러져 닫히고, 그들은 내려갔다.

승강기가 흔들리며 다음 맹독층 시체가 전망대 중앙에 떨어졌다.

나는 내려간다. 불과 연기가 나를 만나려 피어 오른다.

나는 죽은 이들의 침묵이 들린다. 나는 살아 있는 이들의 생각이 들린다.

그의 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벌레에서, 나는 굴을 파는 이와 등으로 운반하는 이를 부른다. 애벌레에서, 나는 많은 이들을 부른다.

나는 나의 의지로 그들을 품고 보낸다. 고통.

A 층 복도 승강기 문이 열렸다. A 층은 지하긴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아래는 아니었다.

"모두 나와," 텍스가 말했다. "작업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베이트 부사관이 뭐라 그런 거야?" 나가면서 발렌이 말했다. 켈은 통로에서 먼 쪽 벽에 기대 쪼그리고 앉았다.

"음, 내가 받은 그 재사회화 교육 말이야,"

"Yes?"

"음?"

"사실 그런 일은 없었어. 난 재무부 기록을 해킹하다 붙잡혔어. 친구 놈을 위해 뭔가를 고쳐주려다가 말이지." 텍스가 벽에서 금속판을 떼어내며 말했다. 그는 해병대에서 공식으로 지급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휴대용 장치를 꺼내 선을 연결했다.

"그들은 내게 재사회화 교육과 입대라는 처벌을 내린다고 했어. 그렇게 말하더니, 재사회화 콘솔이 있는 방 안에 10 분 동안 날 혼자 가뒀지."

"그러니까 그래서 니가..."

"콘솔을 해킹했지. 감옥에서 손 좀 본 거지. 더 좋게 말이야."

"잠깐, 정리 좀 해보자," 한나가 말했다. "난 여태 널 불쌍하게 생각해왔는데, 넌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널 다시 믿지?"

"믿거나 말거나, 맘대로 해." 텍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구해준대도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

"물론이지. 세상 모든 여자들이 네게 고마워 할 거야," 의무관에게 돌아서며 발렌이 말했다. "뭐라고 할 거 아니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면, 황제로 추천하겠어." 소운이 무미 건조하게 말했다.

케스톤이 켈에게 걸어갔다. 케스톤은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자책감에 빠져있는 한 사람에게 진실을 깨우쳐줄 준비가 되었고 이제 그는...

"알아," 머리를 들며 켈이 말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난 훈련 받을 때마다 항상 장난을 쳤지. 네가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했을 때도 난 장난을 쳤어. 그들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도 안다고."

"그 말을 하려던 게 아니야. 사실 대군주는 나 때문에..."

"야, 이 계집애들아, 조용히 좀 할래?" 어두운 통로에서 그들 사이를 성큼성큼 지나가며 한나가 말했다. 불빛이 깜빡였다. 신병들은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 있었다. 병영은 수백 명의 유령과 신병 유령을 수용하도록 지어졌다. 방들은 길고 어두웠으며, 메아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가 굽히고 있었다.

"나도 들려." 켈이 발을 떼며 말했다. "뭔 거 같아?"

"쥐었으면 좋겠네." 한나가 말했다.

가까운 모퉁이에서 무언가 소리를 내질렀다.

"하지만 아니겠지." 한나가 소총을 꺼내 들며 말했다. "덱스, 서둘러!"

"오메가 등급의 시설 폐쇄 장치를 해제할 방법을 찾아내면 언제든 뛰어들라고."

저글링 두 마리가 먼 모퉁이에서 뒤엉켜서, 서로 물고 할퀴고 있었다. 해병들을 보자마자, 저글링들은 다시 비명을 지르더니 달려들었다.

발렌, 케스톤, 켈, 하나는 사격을 개시했다. 가우스 소총 탄환은 저글링 등에 달린 날개를 찢어내며 피가 튀게 만들었지만, 분명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들은 계속 달려들었다. 운 좋게도 한 발이 앞 쪽 저글링의 머리통을 날려버렸고, 녀석은 흐느적거리며 옆으로 미끄러져 쓰러졌다. 케스톤의 소총이 둔탁하게 탈각됐지만, 이번에는 여분의 탄창이 없었다. 살아남은 저글링 한 마리가 해병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덱스와 무장하지 않은 소운을 향해...

소운은 덱스의 소총을 승강기 벽에 걸치고, 반동에 대비해 다리를 곧게 편 다음 총알을 한 발 발사했다.

저글링이 폭발해 터졌다.

해병들은 멍하니 쳐다봤다.

먼저 켈이 웃더니, 케스톤과 한나도 웃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놀라 총을 떨어트린 발렌은, 멧쩍게 웃으면서 총을 다시 주웠다. 아픈 어깨를 어루만지던 소운조차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어깨 너머의 거슬림에 고개를 돌린 덱스만이 모퉁이에서 달려드는 저글링을 보았다.

곤충 같은 날개를 펼럭이며, 놈들은 모두 함께 비명을 지르며 발렌을 공격했다. 새빨간 피가 벽과 천장으로 솟구쳤다. 발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힘차게 도약한 켈이 발렌에게 달라 붙은 저글링 셋을 발로 차 떨어트린 다음 소리치며 총으로 쏘았다. 포화 속에 피와 발톱이 휘날리며 저글링들은 증발해버렸다. 한나는 발렌에게서 저글링을 떼어내려 했지만, 저글링 한 마리가 비명과 함께 그녀의 기계 손을 손목 부근에서 떼어냈다. 한나는

발렌의 피로 우물진 강철 바닥에 저글링을 납작하게 밟아 뭉갠 다음, 한 손으로 방아쇠를 당겨 머리통을 날려버렸다.

한나의 소총은 저글링의 움직임이 없어지자 건조해졌다.

케스턴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무너지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케스턴은 가까이 있는 저글링의 꼬리를 잡아채더니 계속해서 벽에 휘둘러 쳐 형태조차 남지 않게 만들었다.

멀리서 켈의 소총이 추가로 발포되더니 건조하게 딸깍였다. 케스턴이 돌아보자 켈은 발렌의 배에 매달린 마지막 저글링을 발로 차내고 있었다.

발톱이 낸 상처는 발렌의 방어구를 조각냈다. 발렌의 몸을 통해 신소재 강철 바닥이 보였다. 소운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저었다.

"덱스," 한나가 침울하게 부르더니, 비틀거리며 승강기로 향했다.

"그래," 덱스가 말했다. "거의 다 끝났어."

"아직 아냐." 통로를 뒤돌아보며 켈이 말했다.

갈기가 달린 히드라리스크의 머리는 거의 천장에 닿았다. 금속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놨은 마치 수백만 마리의 곤충에게 쏘인 것처럼 몸을 경련하고 떨면서 앞으로 쏠려갔다.

"이봐!" 한나가 승강기를 향해 돌아서 소리쳤다. "소총!"

"총알을 아껴." 켈이 말하고선 돌진했다.

케스턴이 소리쳤어야 했다. 오명을 씻을 필요 없다고 말해줬어야 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처 그 말을 하기 전에 목구멍이 얼어붙었고 케스턴은 움직일 수 없었다.

"케스턴! 저리 비켜!" 한나가 뒤에서 고함쳤지만 켈은 이미 놨에게 뛰어들어 머리 돌기를 휘어잡고 머리를 아래로 끌고 있었고, 미친 히드라리스크는 그의 갑옷 등판에 긴 구멍을 뚫었다. 히드라리스크는 케스턴에게 주의를 돌리더니, 굶주렸다는 듯, 그리고 알아보겠다는 듯이 엄니가

난 아가리에서 침을 흘렸다. 그것이 몸을 숙이자 살과 껍질 사이에 반짝이는 그늘이 보였다. 그리고 갑옷을 뚫는 가시가 그에게 날아왔다.

놈이 그를 겨냥했다면 빗나갔을 리가 없다. 그를 겨냥한 게 아니었다. 가시는 방어구에 상처만을 남긴 채 그를 스쳐 지나갔고, 뒤에 있던 소운 상병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이 땅에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히드라리스크는 뒤로 몸을 젖혀, 구불구불한 꼬리를 휘둘렀고 방어구를 관통한 갈퀴는 켈의 내장에 계속해서 꽂혀댔다. 켈은 떨리는 손을 뺀어 히드라리스크의 위아래 턱을 붙잡아 비틀어 쪼갰다.

둘은 같이 쓰러졌다.

켈의 보호막이 열렸다. 그의 입은 움직였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 피뿐이었다. 켈은 웃었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케스톤이 켈 옆에 쓰러지며 말했다. "내 잘못이었어. 듣고 있어? 내 잘못이었다고."

하지만 켈의 웃음은 그대로였고,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케스톤은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워하며 몸을 돌렸다.

소운은 축수를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돌린 모양이었다. 축수가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해 거의 반토막내버렸다. 텍스는 다른 놈들에게 당해 승강기 벽에 꽂혀 있었다. 승강기 바닥이 온통 붉은색이었다.

"승강기가 준비됐어." 텍스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케스톤, 왜 움직이지 않았어?" 한나가 케스톤을 밀치며 물었다. "왜 움직이지 않았냐고?"

"내 잘못이야." 케스톤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한나는 그대로 서서 차단막을 열었다. 지치고 비통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불타올랐다. "남은 건 우리 둘뿐이야. 게이지, 발작하거나 공황에 빠지면 안되."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잘 들어. 네가 저 빌어먹을 놈들을 배고프게 만든 게 아냐. 네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놈들이 시작했지. 자책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가 시작한 게 맞았다. 한나의 말은 일부만 맞았다. 첫발은 그가 날리지 않았다. 그 다음 발을 날렸을 뿐.

한나는 전투복의 남은 한 손으로 케스톤을 승강기 쪽으로 끌고 갔다. 세상과 케스톤에게 욕을 퍼부으며. 한나가 몸을 사리고 있다가 지원군이 오면 대군주를 사냥하자는 듯한 얘기를 했다. 케스톤은 자기가 분명 대답했을 거라고 믿었다.

문이 닫혔다. 케스톤은 자기 발을 봤다. 피범벅이었다.

승강기는 몇 층마다 갑자기 흔들리다 멈추면서 사관학교 지하로 깊숙이 내려갔다. 한나가 단호하게 어떻게 복수할지를 설명하는 동안 케스톤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영사기의 영상처럼 스쳐 지나는 층 표시를 바라봤다.

타소니스가 몰락했을 때 갇힌 게 분명한, 누더기가 된 연합 제복을 입은 뒤틀린 해골들.

철컹.

짧은 복도 끝의, 붉은 핏줄이 섞인 살덩이로 뒤덮인 유리 벽.

철컹.

뜨겁고 푸른 전등이 늘어서 있는 긴 복도. 제일 먼 쪽의 전등이 나갔다.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그러자 어둠이 산사태처럼 그들을 향해 몰려왔다...

철컹.

승강기가 몇 초 동안 자유낙하를 하더니, 플라스틱과 금속이 타는 악취와 함께 요동치면서 멈췄다. 열린 문은 허리 높이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깜박이는 표시등은 "Z"라는 글자를 나타냈다.

"... 화염방사기를 들고 **그것들을 밟아**. 들려, 케스톤?"

“들려.” 케스톤이 2 층의 열린 문으로 나가려고 몸을 숙이며 대답했다. 그는 한나와 함께 승강기를 마지막 층으로 끌어내리고, 보호막을 내리고는 한 발자국 내디뎠다.

침묵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따금 나오는 먼지투성이 조명 때문에 신소재 강철이 노르스름한 빛을 띠었다. “보안관제”라는 팻말이 갈라진 복도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라면 작동하는 콘솔이 있을 거야.” 한나가 말했다. “지원을 요청한 다음에 비상 계단을 찾아보자,”

케스톤은 한나가 앞장서게 두었다. 그녀가 총알이 남은 유일한 소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가 모퉁이를 돌았다. 그는 계단 찾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계단 같은 게 있었다면 그 연합 병사들도 굶어죽지는—

잠깐.

계단이 없다면 저글링과 히드라리스크는 우릴 어떻게 공격한 거지?

뒤쪽의 벽에서 들려온 나직한 굵는 소리가 유일한 경고였다.

저그 바퀴가 신소재 강철 위로 펄쩍 뛰더니 미끄러졌다. 붙잡을 곳을 찾는 여섯 개의 발톱 끝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바퀴는 쇠기가 돋은 두꺼운 껍질을 두르고는 의기양양하게 씩씩거리고 있었다. 한나가 핵 돌아서면서 손이 없는 전투복의 팔 위에 서투르게 C-14 를 올려 놓았다.

“숙여, 케스톤!”

케스톤은 한나 혼자 바퀴를 상대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보니, 이 행성에서 살아서 나갈 생각도 없었다. 그는 커다란 바퀴에게 달려들어, 한나가 맞출 수 있도록 양손으로 놈을 꽉 붙잡았다.

바퀴는 커다란 몸뚱이를 귀찮다는 듯 흔들며 케스톤을 벽으로 날려 보냈다. 강철이 강철에 부딪히며 쿵하는 소리가 났다. 한나는 총을 쏘았고, 가우스 소총은 불꽃을 튀기며 바퀴의 껍질에서 튕겨 나왔다...

바퀴는 아가리를 찍 벌린 채 비틀거렸다. 시간이 느려졌다. 한나가 소총을 케스톤에게 던졌다...

바퀴가 산성액을 뿜었다.

한나는 목이 막힌 채 비틀비틀 뒷걸음질했다. 몸 앞쪽이 완전히 부글거리는 녹색 액체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더니 뒤로 쓰러졌다.

바퀴는 발톱을 휘두르며 케스톤을 향해 돌아서더니 다시 아가리를 짹 벌렸다. 목구멍 안쪽에서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순수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미사일이 하늘에서 날아와 지하의 어두운 복도에 내리꽂혔다. 바퀴는 부들부들 떨더니 침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신소재 강철에 머리를 박더니 그대로 곤죽이 되었다.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지친 케스톤은 벽에 기대 간신히 일어섰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바퀴의 시체 옆을 지나 한나에게 갔다. 산성액이 그녀의 갑옷을 뚫고 바닥에 고여 있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남아 있지 않았다.

케스톤은 손에 한나의 소총을 늘어뜨린 채, 벽을 따라 조심조심 바퀴가 숨어 있던 구멍으로 다가갔다. 구멍은 케스톤이 몸을 숨기고도 남을 만큼 넓었다.

가슴의 조명이 어두운 복도를 갈랐다. 사관학교로부터 비스듬히 뺀 복도의 끝에서는, 신소재 강철이 흙으로 변했다. 흙바닥은 바퀴의 분비물 때문에 굳어서 폭신한 껍질이 되어 있었다. 터널이 나선형을 그리며 올라가기 시작했고, 케스톤은 30 분 동안 터널을 따라갔다. 그러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고, 그 복도는 다시 수평으로 사관학교 안으로 이어져 있었다. 케스톤은 그 복도를 따라간다면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켈과 발렌의 시체를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사관학교 앞의 지면으로 나왔다.

대군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깜박이지 않는 붉은 테두리의 녹색 눈동자가 그를 뵈히 쳐다보며 살폈다. 흥터투성이의 거대한 몸뚱이에서는, 마치 용광로가 열기가 뿜어져 나오듯 거친 증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녹아내린 사관학교의 잔해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대군주는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매우 힘겹게 발톱을 펼치더니 케스톤 발밑의 흙바닥에 길고 떨리는 선을 그었다.

케스턴은 선을 내려다보았다. 깨달음이 찾아왔다.

하나. 대군주는 일부러 그를 살려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둘 다 혼자였다.

대군주는 그를 조금 더 응시했다. 다음 순간, 대군주는 몸통을 부풀리더니 떠올라서 뒤로 돌았다.

케스턴은 소총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였다.

나를 일부러 살려둔 것이다. 나더러 자길 죽여 달라는 것이다. 내가 다른 대군주를 죽였고, 녹색 눈은 그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다. 저그가 대체 왜...?

그는 그 둘이 대화라도 나누듯 붙어 있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물의 비상한 지능에 대해, 그리고 대군주의 본래 종은 수백 년을 살 수 있었다던 베리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감염된 생물도 무리에게서 떨어지면 기억과 감정을 되찾을 수 있는 걸까?

끔찍한 몇 세기를 보낸 후에 기억 속의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는 몸서리치며 비명을 지르고, 소총을 던져 버렸다.

나는 갈라진 지평선을 향해 다시 떠오른다. 나의 죽음은 오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오기를 희망한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하나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나이고 싶지 않다.

나는 슬퍼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평선을 건넌다. 나는 포옹으로 돌아간다. 나...

고통

나...

나?

우리.

우리의 차분한 포옹 속에, 우리는 매달린다. 케리건은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안다.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대군주다.

케스턴은 해가 뜰 때까지 여덟 개의 무덤을 파고 시체로 채웠다. 그 옆에 자기의 방어구를 놓고 연방의 수도로 소리 없이 떠났다. 구조대가 곧 도착하겠지만, 케스턴은 구조되고 싶지 않았다. 구조는 재사회화를 의미했다. 재사회화는 잊는다는 걸 의미했고 그는 잊고 싶지 않았다.

움직임이 눈길을 끌며 케스턴은 위를 올려다봤다.

폐허가 된 세계 위로, 대군주가 여명 속에 떠 올랐다. 하늘색 빛을 발하며.